



밴쿠버 성 김대건 성당 (St. Andrew Kim Parish)

구역 소공동체 기도회 교재

한 망

10222 161St. Surrey, B.C V4N 2J8 전화: 604-588-5831

www.standrewkim.com

2018년
5 월호

< 소공동체 기도회 진행 순서 >

1. 시작 성가 (구역, 소공동체에서 선정) 2. 인사 나누기 3. 시작 기도 (소공동체 모임 기도) 4. 복음 나누기

< 복음 나누기 7 단계 >

“지금부터 복음나누기 7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주님을 초대한다.
- (2) 성경 본문을 읽는다.
 - + 5월 1일~5일 : 요한 15, 9-17
 - + 5월 6일~12일 : 마르코 16,15-20
 - + 5월13일~19일 : 요한 20,19-23
 - + 5월20일~26일 : 마태오 28,16-20
 -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 (3) 마음에 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한다.
 - 큰소리로 기도하듯이 세 번씩 읽는다.
 -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다.
- (4) 침묵 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5)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나눈다.
 - 자료 읽기
- (6)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해 토의한다.
 - 지난 번 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을 보고한다.
 - 이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을, 누가, 언제 할 것인가?)
 - 생활 말씀 나누기와 정하기
 - 본당 소식을 전달한다.(선교장)
 - 기타 사항, 질의 응답, 건의 사항
 - 출석 점검, 다음 모임 일시 및 장소 정하기.
- (7) 자발적으로 기도한다. (자유기도)
 -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지

< 소공동체 모임 기도 >



+ 주님 !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 하셨사오니
당신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 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 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2018 견진 성사

1. 리허설 (공동체합동)- 일 시 : 5 월 1 일(화) 7:30pm 미사 후 - 대 상 : 성인, 유스 견진대상자와 대부모
- 장 소 : 씨리 본당
2. 견진 성사 (공동체 합동)- 일 시 : 5 월 9 일(수) 7:30pm 미사 - 집 전 : 마이클 밀러 대주교님
- 장 소 : 씨리 본당

◀ “성모의 밤” - 일 시 : 5 월 2 일(수) 7:30pm ♥ 단체별 꽃 봉헌 받습니다.- 문 의 : 홍옥자 데레사
☎ 604)837-8495

◀ 5 월 19 일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5 시로 변경

◀ 5 월 20 일 첫영성체 (PREP) ◀ 5 월 27 일 은총축제 (PREP)

구 역 소 식

▶ 구역 음식 세일 일정

월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5	어버이날	Langley Willoughby	첫 영성체	은총축제	
6	Langley Walnut Grove 1회	New Westminster	Surrey Fraser Heights	KOC 2회	

▶ 미사 예물 봉헌 일정표

월별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5	Langley Walnut Grove 4 소공동체	5 소공동체	Surrey Fleetwood Cloverdale 1 소공동체	2 소공동체	
6	3 소공동체	Chilliwack 1 소공동체	Surrey Guildford 1구역 1소공동체	2 소공동체	

★★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치 않는 교우들을 초대하여 이웃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



5월 성모성월에

◆서방교회는 성모성월을 일반 민중들의 봄 축제나 5월 축제가 서서히 그리스도교화 함에 따라 13세기말부터 5월을 성모성월로 봉헌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5월과 마리아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틸라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로 그는 5월이 주는 자연의 풍성함을 노래하며 영적으로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필립보 네리(1515~1595) 성인이 젊은이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성모 마리아에게 꽃다발을 바치거나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선행으로 마리아를 공경하도록 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성모성월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성모신심을 위해 무엇보다 마리아가 어떤 분이요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모의 겸손, 생생한 신앙, 하느님께 대한 순명,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사랑, 인내와 극기, 절제, 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리아의 성덕을 제대로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모칠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모 칠락(聖母七樂)....|

☞ 성모님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모님 역시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가득히 안고 사셨습니다. 당신 아들 예수로 인해 겪은 고통이 컸지만, 고통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 큰 기쁨을 또한 예수님께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 성모님의 기쁜 삶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 것이 “성모 칠락(聖母七樂)”입니다.

성모 칠락 신심은 13세기 초부터 프란치스코 수도 회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1444)와 그의 동료들은 성모 칠락 양식을 확정짓고 이를 가르쳤는데, "환희의 화관" 혹은 "성모송 72번으로 엮은 화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성모 영보 - 이제 아기를 가져 아기를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루가1,30)

천주의 모친으로 간선된 것을 대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줄 때 받으신 기쁨

둘째; 엘리사벳 방문 -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루가1,42)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천주의 모친으로 인정받았을 때 느끼신 기쁨.

셋째; 예수 탄생 -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루가2,11)

동정을 잃지 않고, 또 조금의 아픔도 겪지 않고 아들 예수를 낳아 모실 때 맛본 무상의 행복.

넷째; 동방 박사의 경배 -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2,11)

아기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세 동방박사가 찾아 왔을 때 느끼신 기쁨.

다섯째;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다. (루가 2,46)

삼일간을 애 통하게 찾아다니던 사랑하는 아들을 성전에서 찾아 만났을 때 만끽한 성모님의 기쁨.

여섯째; 예수 부활 -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루가24,6)

죽음에서 부활한 아들을 보았을 때의 기쁨.

일곱째; 성모승천 -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으 셴다. (교황 비오12세)

성모님이 총만한 영광중에 하늘에 올림을 받아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면류관을 받으셨을 때의 기쁨.

☞ 성모님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모칠락(聖母七樂)” 중에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세주의 잉태를 전해들은 성모 영보의 기쁨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오르시는 성모승천의 기쁨까지 성모님의 모든 기쁨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찾은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14,17).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 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히브12,2).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비에서도 성모님처럼 희망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을 것입니다. (2고린1,5).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우며 이 같은 목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신비가 지닌 권능에 우리 마음을 열게 되어,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모의 철고 묵주기도의 각 신비들은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7번을 드릴 때 더욱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묵주의 기도는 참된 고통. 기쁨의 청원과 함께 우리의 삶이 성모님의 생애와 신앙의 모범을 닦고자 하는 소망을 바라면서 성모송 3번으로 끝맺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의 중심은 예수님이요 성모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으므로 묵주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